

축산업 支援機關의 活性化



황 영 구

(한국축육개발협회장)

근면한 노력과 성실한 협조로 선진국대열에서 문화민족으로서 장래의 여명(黎明)을 향하여 농민을 선두(先頭)로 온 국민이 단결된 모습으로 매진(邁進)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명심(銘心)하여서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이라는 복지사회(福祉社會)를 쟁취하게 된다면 현세대는 욕(辱)된 선조(先祖)가 아니고 명예로운 선각자(先覺者)로서 복(福)된 국가를 후손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다.

고도산업사회(高度産業社會)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인구는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농업은 자연섭리(自然攝理)에 영향력이 강하여 지역적으로 그 생산기반이 편재(偏在)하여 있기 때문에 식량의 자급이라는 문제와 수려(秀麗)한 국토의 보호미화(保護美化)라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전세계적으로 크게 강조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특히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그 기초의 구조개혁과 개발이라는 의미에서 더욱 중요시 되고있는 것이다.

국민의 소득과 문화가 향상되면 식생활의 취향(趣向)과 소비의 성향이 식물성인 곡류에서 동물성인 축산식품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수년간의 축산식품의 수요는 예측을 완전히 전도(顛倒)할 정도로 증가하여 축산업의 시련기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양축농가들의 발전을 전제(前提)로 변천하여 가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축산식품의 수요 공급의 원활과 생산기반의 조성과 유지를 위하여 축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 민간을 막론하고 모든 기관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먼저 축산관계 정부의 기구를 보면 타분야에 비하여 극히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농업은 농수산부에 기반조성(基盤造成) 생산 수매유통판매(收買流通販賣) 및 자금등을 각기 전담하는 국(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산림과 수산은 외청(外廳)으로서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강력한 체제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반(反)하여 축산은 단 1개국으로서 5課를 가지고 과(課)에서 다른 부문의 국(局)에 해당하는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장래에는 축산업의 신장(伸張)과 함께 정부조직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나 우선 현재의 축산국 기능을 가축의 생산개량 증식, 축산경영 자급사료 생산, 가축위생 축산물 및 사료의 유통과 가공이용 및 행정등으로 구분하여 순수한 기술분야와 가공유통과 지원행정으로 전문화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축산업의 지원기관을 총지휘하는 사령탑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축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사업은 가축위생 업무를 합하여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축산발달 여하에 따라 역사나 규모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국가에서 직접투자하는 기관으로서 학문과 과학적인 기술발전에 대한 위대한 업적을 올리고 있으며 그러한 업적에서 얻어지는 과학과 기술은 가축의 생산성을 유전적(遺傳的)으로 개량하여 생산능력의 제일성제고(齊一性提高)에 기여하여 왔으며 또 현재도 하고있고 장래에는 그 기여도가 가속도(加速度)로 증가 될 것임을 우리는 다같이 기대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축산의 시험연구기관은 8.15해방전과 후(後)를 통하여 1952년대의 중앙축산기술원 독립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농사시험장의 부분편제(部分編制)로서 많은 번전을 하였으나 양축농가나 축산관계자의 이념(理念)이나 의사에 반하여 추종적인 위치에서 독자성이 없는 수동태세(受動態勢) 이었다.

독립하였던 중앙축산기술원도 농업분야의 질시(嫉視)로 농사교도법과 농촌진흥법에 의하여 무참하게도 유린(蹂躪)을 당하면서 현재와 같은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축산시험장과 가축위생연구소 및 과거에는 축산의 시험

연구기관 이었던 고령지와 제주에 있는 지역시험장이 축산이 종적(從的)인 위치에서 그 명맥(命脈)을 유지하고 있을뿐이다.

양축농가를 주동으로 모든 축산계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던 축산의 시험연구기관이 정식 정부발표에 의하면 다행이도 농촌진흥청 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축산국 직속으로 개편된다고 하니 과거 분리에 반대하여오던 농업분야의 학자나 기술진 또 이에 무정견(無政見)하게 동조하던 사람들의 맹성(猛省)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음을 재고하여 정당성(正當性)에 저항하여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하겠다는 편견을 혼연(欣然)히 포기하여 주기 바란다.

농촌진흥청이 축산시험장을 무리하게 흡수(吸取)하여 가지고 지원을 하였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투시하여 보면 재정과 인사권의 하급공무원의 전보권(轉補權) 까지를 전관(專管) 장악하고 있으며 학문적인 면에서는 축산업의 동물과 주곡농업의 식물과의 생태학적인(生態學的) 차이와 학문의 주제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도울 수도 없으며 도와 지지도 않는 것이다.

특히 주곡농업에 종사하는 기술진의 관리자 들은 주곡의 자급이나 성취할 것이지 그 임무도 완수 못하면서 무슨 이유로 축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도 못하며 양축농가를 위시한 축산분야 사람들의 소망을 무참하게 저지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여 가면서까지 지배(支配)를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는 바이다. 특히 가축위생연구소의 예를보면 농촌진흥청으로 합병되기 전에는 8.15해방후 국내에서는 어느 연구기관 보다도 미국의 지원과 내부 학자들의 노력으로 경이적인 발전을 하였던 것이 사실인데 농사교도법에 의하여 가축방역에 법적(法的) 책임도 없는 당시 농사원이 흡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기간 발전

속도는 무슨 이유인지 독립 당시에 비하여 농촌진흥청 지배후에는 아주 완만(緩慢)하다는 것이 그 분야 학자는 물론이요 기술자들의 중론임을 경청하여야 한다.

축산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 고령지 및 제주시시험장등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정(既定) 방침대로 빠른시일내에 분리되어서 축산관계기관으로 통합되어 재조직 하였을 때에는 축산이라는 산업의 장래를 전망하면서 자기 독자성(獨自性)을 가지고 국가에서 주어지는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여 양축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기함과 동시에 축산업의 위치를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

축산의 연구기관이 분리 독립되었을때에 특히 고려하여야 할 점은 년도별로 제한성이 수반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재정과 인력을 연구업무에 총체적으로 투입하여 총력을 기울여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외국에서도 그 예가 없는 변태적(變態的) 업무의 구상이나 착수를 한다는 것은 재정과 인력의 낭비라는 것을 당무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우량종축의 생산공급은 자금의 소요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 회임(懷妊)기간이 길으므로 국가가 민간을 지도하는 위치에서 항상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한우는 외모심사와 발육성적을 기초로 혈통을 찾아 선발 등록하여야 하며 이와같이 등록종빈우를 국가가 보존하고 축산진흥대회에서 한우 참피온으로 입상한 종모우를 활용하여 우수한 종빈우(種牝牛)와 종모우(種牡牛)의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일본의 화우(和牛)의 예와 같이 한우의 육용(肉用) 가치 증진을 위한 개량을 도모하여야 한다.

젖소는 국립종축 생산기관과 새로 발족하는 축산업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진밀하게 연락하여 종우(種牛) 홀스타인종의 후대검정사업(後代檢定事業)에 의한 종모우의 국내생산

과 산유능력검정의 확대실시로 선진국 수준의 산유능력까지를 목표로 국가의 시책적인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양돈과 양계는 일본이 기(既)히 수십년전에 확장 개편하여 소기(所期)의 목적달성과 많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것과 같이 국가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여 종돈과 종계생산시설을 확장하고 능력검정에 의하여 우수한 계통을 선발하여 생산능력 향상과 제일화(齊一化)를 기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민간주도형에 국가가 추종(追從)하여야 하는 정상적인 상태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책임을 스스로 양계농가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양계업의 정체(停滯)를 유발하게 된다.

특히 돼지와 닭은 높은 기술 축적에 힘입어 축산식품 생산업으로서 돼지의 합성종(合成種) 닭의 난용(卵用) 및 부로일러종의 생산사업이 근래에 와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투자효율이 높은 산업으로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하여야 한다.

국가의 검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검사기관은 국립으로는 동물검역소와 현축산진흥회(現畜産振興會)산하에 사료검사소가 있는데 동물검역소는 국내가축의 전염병침입방지 와 국내적인 가축전염병예방의 정보교환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음으로 검역관들의 기술연마(技術研磨)와 가축과 축산물을 원료로 하고있는 국내산업보호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수입업무(受任業務)의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료검사소는 사료외에 축산기자재(畜産機資材)와 축산물의 종합적인 검사기관으로서 일반 농산물이나 수산물검사와 동등하게 검사기관을 국립으로 신설확장(新設擴張)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는 외국의 예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축산업이 발달하여서 축산물을 대량 수출하게 된다면 축산물의 품질보증을 위하

여서도 지금부터 국가검사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업의 경제단체는 협동조직체로서 기정사실화(既定事實化)되어 있는 축산진흥회창설이념에 따라 각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축산의 모든 경제업무를 축산진흥회로 통합정비(統合整備)하여 협동조합체제(協同組合體制)에 의한 축산농가의 모체로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와 동등하게 법적으로 의무와 기능이 주어져야 한다. 축산농가와 축산법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져야 정부명령으로 축산진흥회내에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창립 사무국이 발족되어서 창립업무를 개시하고 있는 오늘날 과거의 비리(非理)나 모순을 지적할 필요는 없으나 금후 다시는 통합이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사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육성발전을 저해(阻害)하는 발설(發說)이나 행동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새로 발족할 축산업의 협동조합체는 중앙회를 위시하여 지역 업종별 조합을 총망라하여 축산농가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축산이라는 거목(巨木)을 길러서 알찬 결실을 얻도록 과거에 배가(倍加)하는 노력을 경주(傾注)하여야 한다.

선진외국(先進外國)에서는 순수한 민간단체인 사단(社團) 또는 재단(財團) 법인의 각종 협회가 활발하게 축산업발전에 공헌(貢獻)하고 있는 예(例)와 같이 생산자단체(生産者團體)로서는 주요가축의 전국적인 분포와 중요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국민식생활개선에 기여(寄與)하고 있는 축종(畜種)인 소, 돼지, 닭등과 축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는 가축의 등록 검정 업무를 관장(管掌)하고 있는 협회등도 외국의 예와같이 정부가 적극지원육성(積

極支援育成)하여서 정부정책을 후원 할 수 있도록 유도(誘導)하여야 한다.

축산물 및 축산업의 원자재를 가공하는 기업체들은 그분야별로 자체발전과 정부시책에 순응하기 위하여 협회를 조직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活性化)하여야 한다.

축산식품의 처리가공사업(處理加工事業)을 기업으로 하는 기업체에서는 원료인 축산물은 특수하게 자체가 생산하는 미약(微弱)한 수량의 예는 대부분을 아직도 그 기초가 취약(脆弱)한 축산농가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1차산업은 선진국에 있어서도 보호를 받아야 하며 기업과 공동으로 생존(生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감안(勘案)하여 주축농업이든 주곡농업(主穀農業)이든 간에 축산물이나 농산물을 기업체가 협약 또는 자유로이 구매(購買)를 하고있는 것이 現實인데 그러할 때에 상인간에 상품거래관념(商品去來觀念)으로 양축농가를 상대하여 문제를 야기(惹起)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관습(慣習)은 조작하지 않는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기업체나 양축농민들로 서로 명심(銘心)하여서 협조하는 사회기풍(社會氣風)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무례(無禮)하게 흡수통합 하였고 번칙적으로 개편정비(改編整備)하여 현재와 같이 분산지배화(分散支配下)에 있는 축산업의 지원기관은 지난날의 전과(前過)를 고두(叩頭)하고 하루빨리 정체(滯滯)하지 말고 예의(禮儀)바르게 축산국 직속으로 환원(還元)되어서 축산업의 발달을 도모(圖謀)하고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체력과 지력(知力) 향상에 공헌(貢獻)할 수 있는 계기(契機)가 되도록 아집(我執)과 편견(偏見)이 있다면 이 기회(機會)에 깨끗이 버려 주기 바란다.